問疑 INQUISTIVENESS
創意 INGENUITY
義理 INTEGRITY

科技大學報

創刊 1988年2月1日
發行人兼 編輯人 李相浩/印刷人 徐登源/主幹 劉平一/編輯長 任喆彬

文公部登錄・마－1333
305－701・大田直轄市儒城區九城洞400・(042)829－5480～2
861－5630

第27號 THE 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西紀1991年2月1日 (金曜日) 【1】

총학생회 선거결과

단결총학 박성훈-정동섭후보 당선 확정

지난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 본교 제6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박성훈－정동섭 후보가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락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전체 유권자 1,877명중 984명이 투표해 52・4%의 투표율을 보였고, 찬성 765표(79・5%), 반대 175표(18・2%)로 당선이 확정된 것이다.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6시부터 시작했으며, 개표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입원의 후보측에서 2명, 학내언론사에서 각각 2명씩의 참관인을 두었다. 선관위의 공식적인 개표결과는 개표가 완료된 8시경에 구학생회관 총학생회 게시판의 대자보를 통해 발표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른 학번별 투표율을 보면 90학번니 65・5%(유권자 522명, 투표자 342명)으로 제일 높았으며, 89학번이 56・1%(256/456), 88학번이 44・9%(220/441), 86－87학번이 34・3%(166/484)로 학년이 낮을수록 높은 참여를 보였다.

한편, 이번 선거과정중 선관위 임원의 실수로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21개의 투표용지가 배부되어 개표과정중 무효표로 처리하여 실제 무효표는 총 44표였다. 이 21표의 무효표는 후보측 참관인의 주장으로 총 투표율에는 적용시키고, 찬성율, 반대율에서는 제외시켰다. 이 무효표중 찬성은 20표, 반대는 1표였다.

또한, 무효표 23표는 검표과정에서 후보측과 참관인들의 양해를 얻어 무효표 상당수를 유효표로 하고 남은 수인데, 이렇게 무효표가 많은 이유는 투표용지를 접을 때 인주가 번져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효표 중에는 학생들의 고의적인 장난으로 인한 것들도 있어, 낮은 투표율과 함께 학내 민주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선거의 의미를 실추시켰다.

한편, 선관위 위원장 전문균(화공학・88)군은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가 단일후보라는 이유도 있지만, 선관위측의 홍보부족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탓도 있다. 여하튼, 다음에는 많은 후보가 나와 진지한 선거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훈－정동섭 후보당선자는 『투표율이 낮아 매우 안타깝다. 그렇지만 제6대 단결총학생회는 진정한 학우들의 선봉으로 일할 것을 다짐하겠다』며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했다.

수강 신청 안내

91학년도 봄학기 수강신청이 2월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다.

해마다 수강신청 첫날에 학생전원이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 몰려들어 때때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던 것을 막기 위해 올해는 신입생은 20일, 재학생은 21, 22일로 나눠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한다.

또한 신입생들은 학번 순으로 반을 배정받아 정해져 있는 교양 기초, 과학 기초 과목 17학점 시간표의 수강신청을 하게된다. 이는 과거 특정 반에 과다 수강인원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KAIST 인력양성 정책협의회 구성

2000년대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본원의 고급인력 양성 계획과 그 추진에 관하여 본원의 자문에 응하게함으로써 동계획의 수립 및 추진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KAIST 인력양성정책협의회」가 지난 11월 구성되었다.

이 협의회는 본원의 장기 인력양성계획의 수립, 조정, 본원의 인력양성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기획, 기타 본원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 12월6일 홍능캠퍼스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2월15일에는 대덕캠퍼스에서 2차회의가 개최되어 고급 과학기술 양성・확충방안(본원 안)을 협의했다.

○오는 3월이면 대학 생활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본교 신입생 여러분께 도지개 신문사를 대표해 인사 드리오.

아울러 본교 첫 신입생이었던 86학번부터 쭉 지켜본 도지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소. 본대학은 학생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이오. 집을 떠나 생활하다 보면 가끔씩 집 생각, 부모님생각이 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빨리 떨쳐버리길 바라오. 이곳 생활도 꽤나 따뜻한 면이 있다오.

○입학식을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미 네개의 성상을 대덕벌에서 보내고 졸업을 맞이한 선배님 여러분.

그동안 쌓은 지식을 새로운 하문연마의 초석으로 삼던지 각계에서 사회봉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던지, 과기대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기술우위시대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바라오.

○「꼬리가 길면 잡힌다」, 언젠가 한번 터질일이라고 여겼지만 점점 파헤쳐 드러나는 예능계 대학 부정 입학의 규모를 보니 놀랍기 그지없구려. 사제지간의 도리를 돈으로 팔아버린 교수들도, 돈이면 만사형통이라 믿는 학부모도 잘못이겠지만 우선 이들을 이처럼 추악하게 만든 사회구조가 한심하기만 하오.

그리고 충분한 실력이 있으면서도 돈과 연줄이 없어 대학진학의 길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름모를 피해자의 아픔을 과연 누가 보상해 줄런지.

○「펑, 쿡－」요즘 TV에는 불만한 눈요기가 참으로 많소이다. 뛰어난 전자장비로 조종되는 미사일, 멋진 전투기들, 어느 전쟁영화보다 더 큰 스케일과 엄청난 장비, 엑스트라가 동원되는 영화를 보며 흥미로워 하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라 하오. 그러나 전쟁의 공포로 떨고 있는 수많은 아랍인들의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데.

전쟁이 오락으로 느껴지고, 그속의 인간의 비참함이 간과될때가 바로 지구의 종말이 아닐런지. 「평화」오직 평화만을 이 도지개 기원하오.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이 책을 감명깊게 읽었음직한 의원나리 몇분이 요즘 세계가 넓음을 몸으로 느끼고 왔다하여 문제가 된다는데. 그러나 넓은 세계를 아는 것보다 국민을 위해 할일이 더 중요함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셨나 보오. 그러나 어느정도 일반화되어 버린 뇌물성 외유를 왜 새삼스레 문제삼는지 도지개는 궁금하기만 하오.

○언론사에 대한 인사권과 공권력투입은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방법인 것 같소. 그런데 방법이 하나 더 늘것 같구려. 바로 「삼류 저질쇼」가 그것이라는데.

작년 봄 서울신문과 한국방송공사에서 공동으로 언론 민민주 인사로 선정받은 서기원 사장이 약속대로 사표를 냈으나 그것이 곧 반려되자, 보는 사람마다 내뱉는 소리 '쫬다 쫬어'

또한, 지난해 KBS에 이어 두번째로 평화방송에 공권력이 투입돼 '민주방송'이 또다시 쇠창살에 갇혔다는데.

불과 29명이 벌이는 농성을 해산시키기위해 백골단 5개중대 7백여명이 활약한 작전모습이 눈에 선하구려.

'이 시대 마지막 양심'으로 꼽히는 카톨릭재단이 투손 근거로 정당한 농성투쟁에 공권력을 개입시켰을까? 더우기 부하들을 쇠창살속에 가둔 방송사장은 과거 민주화투쟁에 앞장선 카톨릭 신자라나.

도지개

학·석사과정 신입생 수련회

새로운 생활의 안내교육으로

1991학년도 본원 학사과정 신입생 수련회가 지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간 대덕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대학생활에 관한 사전 안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숙지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예비지식을 습득케 함으로써 입학후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면학활동과 대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실시한 본 수련회에는 입학예정자 543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학사일반, 장학제도, 복지제도, 학생생활, 병사, 수강신청 안내등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안내가 있었다.

이번 학사과정 신입생 수련회가 예년과 달리 줄어든 것(3일에서 2일로)은 교양강좌를 빼고 신입생 수강 신청기간을 2월달에 따라 날짜를 잡는등 일정을 줄이고 촉박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본원 석사과정 신입생 수련회는 1월28일 신입생(국비, 산학체 학생, 연구원) 661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덕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렸다.

석사과정 신입생 수련회도 학사과정 수련회와 마찬가지로 학생복지, 기숙사안내, 석사일반, 도서관 이용안내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수련회 이후에 연구원을 제외한 신입생 620명은 1월31일까지 복지농도원(충남 천원군 소재)에서 초두 교육을 받았다.

겨울학기 개설

90학년도 학사과정 겨울학기(계절학기)가 지난 1월 4일부터 2월23일까지 8주간 개설되고 있다.

겨울철 기숙사 개방과 동시에 처음 개설된 이번 겨울학기는 재학생들의 학점취득과 졸업생들의 개별・졸업연구 이수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개설과목은 편미분방정식론, 선형대수학Ⅰ, 개별・졸업연구등의 수학과정이며 작년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한 수강신청 결과를 보면 총 83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석・박사과정도 학사과정과의 일관된 연계운영을 위하여 소립자 물리학Ⅰ등 총15개 과목을 개설했으며, 166명을 수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립20주년을 맞는 우리 과학기술원

多事多難 했던 1990年을 보내고, 새로이 新年 1991年을 맞게 되니, 먼저 科學技術院의 學生, 敎授및 職員 한사람 한사람마다 새해에 萬事亨通하여, 뜻하는 일에서 모든 所願이 이루어 지기를 祈願합니다.

今年에 우리 科學技術院은 創立 20週年을 맞게 됩니다. 20年의 年輪이 쌓여서 이제 우리 科學技術院은 成年期에 들어 섰습니다. 20年동안 科學技術院의 모든 食口들이 힘을 다해서 이 나라의 發展과 이 겨레의(삶의) 向上을 위해서 일하여 왔으며 이 事實은 우리나라의 科學技術發展史에 永遠히 記錄될 것이라고 自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每年 약 500명의 學士, 500명의 碩士, 250명의 博士를 輩出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科學技術의 發展에 큰 寄與를 하고 있습니다. 이 過程에서 1990년 한해동안에 우리는 140억원에 該當하는 硏究費를 執行하여 왔고, 其中 약 70억원이 産業界에서 온 受託硏究였습니다. 實로 놀라운 우리들의 成果였으며, 이러한 硏究活動이 大學과 大學院의 統合의 過中에서 이루어 졌으니, 敎授 여러분들의 勞苦에 對해서 다시 한번 致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週年을 맞는 科學技術院은 앞으로 더욱 發展하여 나가면서, 이나라와 겨레에 더욱 더 寄與를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第1次的인 重要性을 띠고있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우리들의 過去를 뒤돌아 보고 自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의 成就에 陶醉해서도 안되고, 自慢해서도 안되고, 오히려 自己自身을 峻嚴하게 批判할 수 있는 自我意識을 지니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알아 차리고, 辨證法的으로 止揚시켜서 더욱 큰 일을 잘할 수 있는 契機로 轉換시키는 智慧를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나라 百姓들의 큰 흉이 어려웠던 일을 너무 쉽게 忘却하는 일입니다. 한 예로써 우리는 過去에 이미 수차례의 에너지波動을 겪었으나 고비만 넘기면 未來에 닥쳐올 또 하나의 波動에 對處하는 일을 疏忽히 하여왔습니다. 有備無患이라는 낱말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동에 걸프전쟁이 발발하여 물가상승의 경제난국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産業界의 科學技術能力이 허약하니 이에 對處해야 한다는 소리가 난지 이미 數年이 되는데 貿易黑字에 躊躇하여 드디어 貿易赤字로 되돌아서면서 亞細亞의 4龍中, 한국만이 土龍의 身勢로 轉落하였읍니다.

이 難局을 克服하는데 科學技術院의 敎職員, 卒業生, 在學生들의 奮發이 크게 期待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대만인, 홍콩인, 싱가폴인 또는 일본인 보다 못하다는 理由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虛勢를 좋아하고, 남과 함께 사는 智慧가 不足하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今年에 우리는 내 主張만을 固執말고, 남의 意見에 귀를 기울이고 內實을 期하여 底力을 堅固히 하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는 3월1일에 碩士課程 新入生이 大德에 들어 오면서, 學士課程과 碩士課程은 完全하게 大德캠퍼스에서 이루어 집니다. 博士課程에 있어서도, 漸進的으로 大德移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서울分院에서 實施할것을 다짐하는 專門碩士課程은 科學技術院法, 大統領令및 學則에 있는 課程으로서 學士, 碩士, 博士로 이어지는 英才敎育課程과는 다르나 서로 對立되는 槪念에서 理解되어서는 안됩니다. London大學校에서 專門碩士課程을 두고 Stanford大學校에서 專門碩士學位를 주고 있으나, 그곳에서 Nobel賞을 받는 사람의 數가 다른 어느 大學에 比해서 遜色이 없습니다. 오늘날 産業界에서 生産과 硏究에 專念하고 있는 學士들에게 再訓練의 기회를 주어서 산업계의 기술수준을 提高시켜야만 합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不拘하고 스・텍 技術水準을 올리는데 限界点에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科學技術院의 또 하나의 사명으로 의식하고, 그들과 산업계의 發展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努力하여야 할 時點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룩한 英才敎育－學士, 碩士, 博士課程－에 이어서 이 겨레가 우리에게 맡긴 第2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니, 今年에 完遂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모든 일에서 科學技術院의 榮光이 더욱 빛 나기를 祈願합니다.

1991년 2월

원장 이 상 수

제4회 한국수학 올림피아드 겨울학교개설

제4회 한국수학 올림피아드 겨울학교(주최 : 사단법인 대한수학회, 후원 : 교육부, 과기처, 과학재단, 협찬 : KAIST)가 지난 1월7일부터 2월2일까지 26박 27일간 본원 대덕캠퍼스에서 개설되었다.

본 겨울학교는 올해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스웨덴의 시그투나(SIGTUNA)에서 개최되는 제32회 국제수학 올림피아드(IMO)에 참가할 한국대표선수단을 구성하기 위한 미욱 심도있는 문제를 다루는 교육과 훈련을 위한 것이다. 참가하생들은 1990년 9월9일에 실시된 제4회 한국수학 올림피아드(경시대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 중 작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제1차 통신강좌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교육부 주최 전국고등학교 수학경시대회 상위입상자, 영재아 교육문제연구소에서 추천한 국민학생 및 중학생 약간명 등 총 46명이다.

이번 참가학생은 본원 및 서울대 교수로 구성된 강사진과 본원 학사과정 학생 6명으로 구성된 조교진에 의해 심도있는 문제를 다루는 훈련을 받았다.

교수동정

▲장영환(화학) 교수는 Pentasectional Acs 학회 논문 발표와 공동 연구를 위하여 12월27일부터 2월26일까지 미국을 다녀온다.

▲강계원(생물)교수는 학술연구 협의및 Hratomical Science Review Workshop 준비를 협의하기 위하여 12월23일부터 1월9일까지 미국을 다녀왔다.

▲임공수(전기)교수는 1월 6일부터 2월15일까지 일본에서 다중관－CVD장치사용법 및 비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 제작법 습득 및 이론해석에 관한 공동을 한다.

▲이순복(기계)교수는 독일과 영국에서 연구자료 수집 및 Projet수행을 위하여 1월2일부터 2월18일까지 머물 예정이다.

▲백승욱(항공)교수는 1월 5일부터 14일까지 29차 Aerospace Sciences Meeting논문 발표를 위해 미국을 다녀왔다.

▲엄효준(전기)교수는 1월 25일 출국하여 독일 SAR Calilration Workshop에 참석하고 논문을 발표한후 2월 6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최창근(토목)교수는 1월 10일 미국으로 출국하여 국제 공동연구(KOSEF 지원과제)를 수행한 후 1월21일에 귀국하였다.

▲오윤용(수학)교수는 1월 18일부터 2월5일까지 미국 Brandeis MIT, Havard에서 연구 협의와 연구소 운영 협의와 견학을 한다.

▲안병훈(경영)교수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월14일부터 20일까지 일본을 다녀왔다.

우리의 문화,우리의 긍지 ②광산 고싸움
전남 광산지방에서 정월 대보름날 마을을 동서로 나누어 실시하던 농경의식의 민속놀이.
그 해 농사의 풍년여부를 점치는 의식과 결들여 온 마을이 힘과 화합을 즐기는 대동놀이.

밀어라 밀어라
풍년들게 밀어라!

이차저차 사설하며 흥겹게 놀아서
온동네 모으면 아름드리 동아줄 —
둥글게 고 만들고 기둥나무 받쳐서
농악대 앞세우고 어깨메고 싸워보자.
우리 동네 우두머리 줄패장 태워놓고
밀어라 밀어라 풍년들게 밀어라 .
돌아라 돌아라 풍년들게 돌아라.
하늘높이 퍼지는 풍물소리 힘을 얻어
멜꾼들 어깨 함에 줄패장 신이 난다.
이마에 굵은 땀방울 맺히고
한마당의 잔치판에 올해도 풍년일세.

우리의 민속놀이는 민중 공동체의식의
소산이었습니다. 민중사를 엮어온
대다수 민중의 뜻과 땀의 결집이
풍년을 기원하고 대동단결을 염원하는
놀이의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놀이문화를
전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승이란
단순히 어제의 것을 오늘에 되살려
재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창조적인
의지발전을 드러내어 새로운 역사발전에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일을 이끌어갈 오늘의 젊은이들이
앞장서 우리의 놀이문화를 전승해갈 때
우리의 고유문화가
더욱 화려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에 긍지를 느낍니다.

대한항공